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지하게 인간·신·공동체 이야기 꺼내야”

한국실천신학회, 제67회 정기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한국실천신학회가 최근 부평 카리스호텔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실천신학의 과제”란 주제로 제67회 정기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조성돈 박사(실천신대 목회사회학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목회”란 주제로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조성돈 교수는 “기술의 진보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 속도가 이제 가속화되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이제 그 속도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될 정도가 됐다”고 했다.

고 지적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딥러닝 등으로 상징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이제 그 속도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될 정도가 됐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런 변화가 이제 인간과 신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간이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었고, 많은 부분 사람의 수고를 이 기계들이 덜어주고 있는데, 이러한 편의함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계 내지는 기술들은 더욱 빠르게 발전하여 이제 인간을 대체해내고 있다”면서 “이제 기술이 인간의 신체를 대체하는 장기들을 만들어 내고 인간의 마음까-

지 저장해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인류의 꿈인 ‘불멸’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더 나아가 그는 “기술이 이제 전지전능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인간을 초월하는 조지능의 시대에 이르면 사람들은 기술의 전지전능을 따라야 할 수 있다”면서 “그렇다면 그 초월의 존재는 기술을 넘어서 신의 위치까지 이르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런 배경에서 조 교수는 결국 ‘공동체’에 대한 질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국도로 개인주의화 됐고, 기술의 발전으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발전되어 할 시 online되어 있는 인간들은 여전히 사이버 공간과 공동체에 접속되어 있지만, 그런 편의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곳에서 고독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실제적인 대면 관계에서는 철저한 소외를 경험하고 있기에 결국 ‘공동체’를 염원하게 될 것”이라 봤다.

그러나 조 교수는 “이들이 원하는 공동체는 개인주의화된 자신들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그래서 공동체의 로망만을 이루어줄 수 있는 수준”이라 설명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와는 좀 거리가 있을 것”이라 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조 교수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과 신앙,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이들의 관점을 비판하는 것만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며 “오히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가벼워진, 그러나 깊은 고민에서 나온 무게를 젖어진 미래세대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안하지만 아직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시 진지하게 인간과 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조성돈 교수의 발표 외에도 “한국인의 마음과 영적 분별”(이주형), “제4차 산업혁명이 기독교 교육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김웅기)

“누구를 위한 기독교인가: 미군정기(1945-1948) 한경직 목사의 전도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김남식), “제4차 산업혁명 속에서 디아코니아의 역할”(이승열) “예전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 두뇌 연구 관점에서”(문화랑) “과학혁명 시대와 복음의 소통 가능성: 유발 하라리의 종교전망에 관한 대응”(김선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 상담과 심리치료”(여한구) “한국교회

초기 설교론에 관한 분석 평가”(이현웅), “기계와 친밀 관계 시대”(권명수) “인공지능과 예배의 조율성으로 자기 회생의 가능성이 연구”(나인선) “인공지능시대의 도래와 설교학의 과제”(양동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영성: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영성”(윤성민) “한국 기독교사립중등학교 종교교사 및 교목의 정체성구성과 종교 수업에 관한 탐색적 질적 연구”(유은희)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한국교회의 성장-쇠퇴 패턴 가능성에 대한 실증연구”(탁색적 질적 연구) (박관희)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또 정기학술대회와 함께 열린 총회를 통해서는 신임 임원진이 구성됐다. 회장으로는 김경진 교수(장신대)가 선출됐으며, 선임 부회장으로는 김상백 교수(순신대), 부회장으로는 황병준 교수(호서대)와 민장배 교수(성결대), 총무로는 서승룡 교수(한신대), 편집위원장으로는 한재동 교수(나사렛대) 등이 선임됐다.

2018년 정기학술대회는 오는 5월 19일 장신대와 9월 16일 필름포럼, 10월 12~13일 소망수양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특별히 10월 70회 정기학술대회는 “응답하라 1919: 삼일정신과 교회의 미래”란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1년 후인 2019년 2월 15~16일 부평 카리스호텔에서는 “인구 절벽시대의 실천신학의 과제”란 주제로 정기학술대회와 정기총회가 열린다.

조은식 기자

‘손정도 목사 87주기 추모식’ 열려

사단법인 손정도기념사업회(대표회장 전용재) 감독과 지난 12일 오전 11시 송실대 한경직기념관 김덕윤예배실에서 손정도 목사 87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

대표회장 전용재 감독은 설교에서 “한 암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손정도 목사님의 희생과 섬김의 법칙을 따라가자”고 전했다.

황종성 송실태 총장은 “자랑스러운 송실인인 손정도 목사님의 추모식이 송실태에서 열리게 돼 뜻깊다. 손 목사는 교단의 선교사이자 애국지사로, 지난 9일 송실태 제90회 학위수여식에서 ‘명예졸업장을 드리게 되어 기뻤다’며 ‘기독교 민족대학으로 유일하게 신사참배에 맞서 자진 폐교한 송실의 역사는 손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동문들의 열과 헌으로 가능했다. 송실태는 통일시대, 통일을 준비하는 대학으로 손 목사님의 나라사랑과 고귀한 정신을 계승할 것”이라고 추모사를 전했다. 이어진 추모사로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 자리는 손정도 목사님의 독립운동의 길과 민족사랑에 대해 되새기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손 목사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셨고, 대한민국 탄생에 큰 역할을 해주셨다.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분열된 독립운동세력을 통합하는데 앞장서고 유관순 열사 등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유족대표 인사를 통해 손 목사의 장손자인 손명원 박사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더러운 것을 깨끗이 치우고, 다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결례철학”이었다며 “손정도 목사님이 원하는 것은 국민이 하나 되어 존경받는 국가가 되는 걸”이라고 밝혔다. 손정도 목사(1882-1931)는 1910년 평양 송실전문학교를 수료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지냈으며, 대한적십자사회를 창립한 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셨고, 대한민국 탄생에 큰 역할을 해주셨다.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분열된 독립운동세력을 통합하는데 앞장서고 유관순 열사 등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유족대표 인사를 통해 손 목사의 장손자인 손명원 박사는 “주인이 원하는 대

로 더러운 것을 깨끗이 치우고, 다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결례철학”이었다며 “손정도 목사님이 원하는 것은 국민이 하나 되어 존경받는 국가가 되는 걸”이라고 밝혔다. 손정도 목사(1882-1931)는 1910년 평양 송실전문학교를 수료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지냈으며, 대한적십자사회를 창립한 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셨고, 대한민국 탄생에 큰 역할을 해주셨다.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분열된 독립운동세력을 통합하는데 앞장서고 유관순 열사 등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조은식 기자

2월 12일은 “소년병 반대의 날”

어떤 아이도 어른들에 의해 전쟁터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전 세계가 목소리를 모으는 날이 2월 12일 ‘소년병 반대의 날’이다. 무력 분쟁에서의 아동 가담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 의장서는 아동이 무력 분쟁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다른 대안이 없는 취약한 아이들이 소년병의 타겟이 되고 있다.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은 국제사회와 함께 소년병 반대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소년병 피해 아동을 위한 통합적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월드비전 제공

통일부, 北고위급 대표단 후속 조치 “다양한 방안 검토 있을 수 있다”

통일부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 귀환 다음날인 12일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 현법상 국가수반 및 북한 최고지도자 직계 가족이 우리 측 지역을 방문했고 이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과 관련해 “향후 여건 조성 시에 남북 정상 간의 한반도 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가 가능한 단초가 마련이 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북한이 필요한 경우 전례 없는 고위급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 정상 간 한반도 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가 가능한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또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와 비핵화 과정의 선순환을 추진하되,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대화를 견인하는 등 탄력적 상호 견인 도모하며, 필요한 경우 전례없는 고위급 협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또 천성숙 통일부 차관이

13일과 14일 각각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주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면담하는 것과 관련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남북 간의 현안, 상호 관심사 등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북한 예술단 137명이 이날 오전 귀환한 이후 북측의 방남 체류 인원은 응원단 등 333명이라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11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북관련 설명 자료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의지가 매우 강하며, 필요한 경우 전례없는 고위급 협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 정상 간 한반도 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가 가능한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또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와 비핵화 과정의 선순환을 추진하되,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대화를 견인하는 등 탄력적 상호 견인 도모하며, 필요한 경우 전례없는 고위급 협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평양뉴스

한교총, 평창 동계올림픽 위한 단기선교사 파송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한국교회봉사단을 파송하고 있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지난 2월 10일 10시 평창김리교회당에서 단기선교사 파송식을 가졌다.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채플린 등 국내외 사역자 32명을 파송한 한교총은 “외국에서 전문사역을 하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로 하여금 자국 선수단을 선교하도록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파송장을 받은 선교사들은 세계 스포츠선교회가 선발했으며, 한국 9명, 미국 6명, 캐나다 2명, 러시아 6명, 르완다 1명, 캐나다 2명, 파키스탄 2명, 스위스 1명, 노르웨이 3명 등 32명이다.

파송식은 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세직선)가 주관하는 직장선교 세계대회와 함께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에는 세직선 총재 정근모 장로와 스포츠선교회 이광훈 목사, 일본 군사마리탄 이사장 카네코미치히토 목사 등과 본회에서는 변창배 총무가 참석했다.

한교총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봉사단을 조직해 파송하고 있으며, 실무는 사무총장으로 지학수 목사와 실무 국장으로 흥석민 목사가 수고하고 있다.

한국교회봉사단은 평창과 강릉 정선에 각각 베이스캠프를 마련하고, 국내외 선수단과 관광객들을 상대로 봉사를 통합 복음 선교 사업을 펴고 있다.

한국교회봉사단은 평창과 강릉 정선에 각각 베이스캠프를 마련하고, 국내외 선수단과 관광객들을 상대로 봉사를 통합 복음 선교 사업을 펴고 있다.

박용국 기자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김노아 엄기호 목사 2파전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제24 대표회장 선거가 김노아 목사(기호 1 번)와 직전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기호 2 번) 2파전으로 치뤄진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 이하 선관위)는 12일 오후 5시까지 후보 접수를 위한 발전기금을 받고자 했으나, 엄기호 목사는 기금을 납부하지만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는 납부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2명이 선거를 치르

게 됐다.

전광훈 목사는 현재 대표회장 직무대행과 선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처분’ 소를 제기한 상태로, 이 사유로 기금을 납부하지 않고 후보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전 목사가 제기한 거친 서류를 12일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박용국 기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아모스 2장 9-16절)

옛말에 ‘삼희성’ 즉 ‘듣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는 세 가지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갓난아기의 우는 소리, 아느네의 다듬이 방방이 소리, 글방 도령이 책 읽는 소리’인데, 이 세 가지 소리가 담 넘어 들리는 집은 유복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건강한 아이가 계속 태어나고, 주부가 집안일을 성실히 하고,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집이라면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삼희성’ 중에서 ‘다듬이 방방이 소리’는 요즘같이 집집마다 세탁기를 들리는 시대에 와서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겠지만, 나머지 두 소리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공한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건강한 후손들이 출생해야 하고 또한 그 후손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 성쇠가 그들의 “아들 중에서 선지자”가 나오느냐 아니냐, 그들의 “청년 중에서 나실인”이 이어지느냐 끊어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나실인’란 ‘성별된 자’라는 뜻으로서, 민수기 6장에서 명하고 있는 대로, 술을 마시지 않고 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며 부정한 것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는 세 가지 서약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선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서약을 하고서 자신을 성별하는 것이 중요한 준비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런 ‘나실인’이 곧 ‘민족의 대를 이어갈 갓난아기’에 해당되었고, 그런 ‘선지자’가 바로 ‘선민의 정통성을 지켜 줄 글방 도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마찬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왜 우리 경향교회에서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

도 이와 같은 ‘나실인’과 ‘선지자’가 꼭 일어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 ‘경건한 후손’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9절과 10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으나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전멸하였으니라 10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아모리 사람”은 “아나 자손”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진군해 들어오기 전에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 중에서도 특히 ‘신장이 장대한 족속’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들을 가리켜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열 경꾼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할 때 자기네들은 그들 앞에서 마치 미처 복을 보았다고 말했던 그 민족이 바로 이 ‘아모리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하기 짜이 없어 보이던 아모리인들을 간단히 그리고 절제해 “진멸”해 주셨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 이제는 해방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자기네의 국토로 얻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꿈 같은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바로 일제 36년의 강점기 때 벗어나서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이루고 대한민국으로서의 주권과 국토를 회복하게 되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야 원래 우리 땅이던 것을 되찾았을 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태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할 것

이 전혀 없다가 그 강력한 아모리 족속이

버티고 차지하고 있던 땅을 빼앗아 자기

네 국토로 삼게 되었으니, 실제로 그들 민족이 되었을 때 그것을 막아낼 힘을 전혀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역사상 최대의 복이라고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를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바로 11절에서 “11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그 뭇지 아니하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은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자기 민족이 받은 크나큰 복인 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처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훨씬 더 큰 복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킨”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영토의 복은 다른 민족들도 다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이스라엘만 받았던 복, 이스라엘만 특별히 누릴 수 있었던 진짜 복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만 ‘선지자’와 ‘나실인’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그 어떤 강대국, 아

무리 넓은 영토와 수많은 백성을 가진 제국이라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 이런 경건한 나실인은 단 한 명도 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 중에서 만 장래에 선지자가 될 인물이 태어났고, 이스라엘 백성의 친세대에서만 일찍부터 나실인으로서 서원하면서 자신을 성별하는 청소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능ана 땅 정복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큰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처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훨씬 더 큰 복을 바로 어린이들을 통해서 찾아내는 가운데 오늘까지 이

저로서 경건한 후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주일학교 학생이 모두 다 ‘중생 받는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급학교

로 올라갈수록 교회를 떠나는 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신앙을 회복시키게 해 주실 수 있는 소중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일학교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우리 경향교회에 있어서 문자 그대

로 ‘천하보다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향교회는 다른 교회처

지입니다.

우리는 경향교회가 강서성전을 얻게 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놀라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만 판단한다면 마치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것같이 전혀 불가능하게 만 보였던 일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IMF 시절에, 우리보다 먼저 성전건축을 시작했던 다른 더 큰 교회들도 다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에, 어떻게 수백 억의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로 기적적으로 당시의 경복학원을 우리 손에 붙여 주셨고 이 ‘경향학원의 터’ 위에 강서성전을 끝내 완공하고 현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뿐 아니라 이제 바로 그 곳에 있는 ‘교육관’과 ‘선교관’까지, 정말 우리가 ‘받아서 쌓기 바쁠 정도로 넘치는’ 복을 언어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경향교회는 이런 ‘땅을 차지하게 된’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경향의 아들 중에서 ‘선지자’가 생기고, 우리 경향의 청년들 중에서 ‘나실인’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교회마다 주일학교 운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그런 현실을 변명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일찍이 원로목사님께서 ‘교회의 미래는 주일학교에 있다’고 하시면서 ‘현대사회일수록 부모를 통해서 자녀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먼저 전도하면 부모도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실로 기가 막히는 전도 전략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강서성대가 시작되던 때부터 ‘어린이 선교원’과 ‘새소식반’을 ‘전도의 무자리판’을 만들어 놓고 ‘닫힌 아파트 문의 열쇠’를 바로 어린이들을 통해서 찾아내는 가운데 오늘까지 이 저마다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일학교 학생이 모두 다 ‘중생 받는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급학교

로 올라갈수록 교회를 떠나는 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신앙을 회복시키게 해 주실 수 있는 소중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일학교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우리 경향교회에 있어서 문자 그대

로 ‘천하보다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향교회는 다른 교회처

럼 ‘학생회’가 아니라 ‘SFC’ 즉 ‘학생신앙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중고대학생들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모임이 무슨 ‘학생친목회’나 ‘학생봉사회’의 개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개혁주의신앙’을 철두철미하게 배우고 의하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교회의 학생들은 문자 그대로 기독교 교육의 최고 엘리트 코스를 통하여 ‘종교개혁자’와 ‘순교자’의 후예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쁜 산양생활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춘기 시절에 이처럼 교회 중심으로 자라나고 있는 이 SFC 운동원들은 그야말로 경향교회의 ‘호랑이 새끼’들과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 청년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들은 주일의 예배 참석을 비롯하여 온갖 봉사활동에 핵심멤버가 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바쁜 생활 중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금요밤 기도회에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기는 하지만 그 교회를 젊은 남녀들의 사교장소 즐으로 여기는 이 시대의 적지 않은 청년들은 달리 우리 경향의 청년들은 이처럼 ‘신진인격자’의 신앙과 ‘신행일체’의 생활을 최우선으로 두는 가운데 서로 드든한 ‘교회의 동량’들로 성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경향교회에 이런 믿음

직한 청년들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진정으로 복을 받고 그 축복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길은 이런 ‘경건한 후손’이 끊이지 않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 경향의 주일학교와 SFC와 청년회를 통해 이처럼 ‘성별된 나실인’들을 더욱 많이 양육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차세대 전도자’를 계속 배출해 내는 것이 곧 교회의 미래에 대한 최고의 보장입니다.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12그러나 너희가 나실인으로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치명적인 잘못을 단도직입적으로 책망하였습니다.

“나실 사람” 즉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나실인의 서약을 도중에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예언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역시 선지자의 생명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의 나실인과 선지자들을 그렇게 타락시키

고 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실인과 선지자 말로 자기 민족의 미래가 걸린 핵심적 존재인 것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땅을 차지했으면 되었다고만 생각하고, 자기 아들들을 나실인으로서 서워시키고 선지자로 키우는 것을 등한시했습니다.

아니 그나마 나실인으로서 서약한 사람이나 이미 선지자가 된 사람들을 차운 방해하고 낚시하겠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나실인에게까지 포도주를 함께 마시도록 압박을 주는가 하면,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위협하면서 함구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풍토에서 어느 청년이 스스로 나실인 서약을 하겠으며 어느 집 아들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지자가 되겠다고 나설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네 나라에서 선지자들이 다 없어져 버려도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방관했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스라엘의 차세대에서 그처럼 ‘예언하는 선지자’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되었을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곧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이면서 망국의 길로 침범되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3절 이하 16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기록하기를 “13보라 곡식 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14빨리 달읍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15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말자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16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조 이스라엘을 주변 강대국들을 동원하여 마치 “곡식 단을 가득 실은 수레”의 바퀴를 “흙을” 짓누르듯이 압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자 이스라엘에서 내로라하며 살던 자들까지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달읍박질하는” 달리기 선수 같은 사람은 물론이고 “말 탄는 자”까지도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강한 자”나 “용사”나 “활을 가진 자”를 비롯하여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 즉 ‘최경에 용사’까지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때 그것을 막아낼 힘을 전혀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My KIDS

기쁨을 나누는 재미 있는
나눔 플랫폼입니다.
나눔 활동을 통해
나눔의 힘을 발견하세요!

My KIDS는 나눔 활동을
통해 나눔의 힘을
증명하는 즐거운
나눔 플랫폼입니다.

My KIDS는 나눔 활동을
통해 나눔의 힘을
증명하는 즐거운
나눔 플랫폼입니다.

자구총 어딘가에 있을 나

이 모든 비참한 망국의 결과는 바로 앞의 12월에 나온 대로 그들이 '나실인'을 타락시키고 '선지자의 예언을 막음'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적국의 강력한 군대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청년들의 경건의 능력이 약해질 때부터 이미 그것은 기정사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세대에서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미래에 치명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청년 세대에 '나실인'이 사라져 가는 것은 보통 염려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청년들조차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어떤 풀이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조차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을 자연스럽게 마시면 그러지 않아도 악성적인 술 문화에 찌든 이 사회에 도대체 누가 좀 맑은 정신으로 바른 정치를 하고 깨끗한 상거래를 하겠습니까? 교회의 청년회 안에서 교제하는 남녀 사이에서 조차 혼전 관계를 예상으로 여긴다면, 초기 개척시대에는 철저한 청교도 신앙으로 가정과 사회를 지켰던 미국이 지금은 무슨 프리쉐스의 천국처럼 되어 버리고 있는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도 고스란히 담습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젊은이들조차 그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몸을 다 바쳐 충성할 줄 모르고 그저 무슨 극장 구경이나 가듯이 일주일에 한번 주일예배 한 시간만 겨우 다녀간다면, 한때 개혁주의 교회 운동으로 전

성기를 이루었던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은 그저 관광명소로 전락해 버린 저 비참한 현실이 바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수십 년 안에, 아니 십 년도 채 끝가서 그대로 벌어지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자기 자식은 절대로 목사를 시키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는 아버지 목사들이 있습니다.

자기처럼 고생시키기 싫다는 일념 때문입니다.

장로 집안에서 자랐으면서도 목사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 장로가 평소에 집에서 걸핏하면 목사 흉을 보고 깔보는 것을 의히 보면서 자랐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자기 자녀가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면 극구 말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무슨 집안의 망조나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처럼 자기 아들이 선지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기 집에 화를 불러들이는 일이 아닙니까? 한 교회에서 몇 년이 지나도 신학생 지원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교회가 실상은 퇴보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아무도 목사가 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비극이며 가장 두려운 망국의 징兆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가 사라지는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나라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경향교회가 '별들의 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선지자로' 키우기 위해 어릴 때부터 '영적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 '별들의 학교' 역시 원로목사님께서 '앞으로 접점 더 신학교 입학생들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판단과 함께 시작된 운동입니다.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들은 많이 있고, 신학교를 지원하는 교회들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경례의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 전도사, 목사 사모'가 될 '별남'들을 일찍부터 서원을 시키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교회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경향교회 딱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로 이 '별들의 학교'와 '별들의 학교 후원회' 덕분에 우리 교단의 고신학대학교에 매년 입학생들이 계속 이어졌을 뿐 아니라 그 지원자들의 자질이 갈수록 더 높아져 왔습니다.

거기에는 그야말로 긍상첨화처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의 미래 역시 이 '별들의 운동' 덕분에 더욱 밝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로 경향의 '청년'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나실인'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데에 곧 이 경향교회의 존속이 달려 있습니다.

이 경향의 '아들'들 중에서 별님으로 서원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목사'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경향교회로서는 문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장래의 전도자들을 발굴하고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최고 멤버로 키워나가는 이것이야말로 곧 경향교회의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장입니다. 깨닫고, 자신의 자녀들을 '별남'이 되도록 격려하고 '별들의 학교 후원회'와 '제네바신학대학원 후원회'와

'경향선교회'를 통하여 이 소중한 '선지자'들을 더욱 힘을 다해 후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싱가포르는 작고 역사도 국히 짧은 나라이지만 기적적인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리게 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고민은 청년들의 출산율이 너무 낮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계속 발전되고 사회조직은 점점 더 전문화되면서 복잡해지는데,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여지역으로 지금 싱가포르는 국제적으로 유학생들을 좋은 조건으로 많이 유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싱가포르에 영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가 과거 역사상 최강 제국이 되고 미국이 현재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공통적인 이유 역시 둘 다 '시민권'을 이용하여 다른 민족의 유수한 인재들을 자기 나라에 영입하기 때문입니다.

실로 교회에 있어서는 '나실인'이야 말로 '내를 이를 것인가'이며 '선지자'가

실로 차세대를 이어갈 인재가 없으면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라도 순식간에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지적 인재도 그라할진대 영적인 인재가 없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청년 세대가 경건의 능력을 잃으면 그 사회의 도덕, 양심, 상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제성장, 국력신장, 이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것은 그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까지 우리 경향교회는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강서성전을 지었고 교육관과 선교관을 구입했을 뿐 아니라, 경향선교회와 제네바신학대학원과 별들의 학교와 경향학원과 경향복지재단 등등 아주 잘 짜인 '영적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채울 신앙의 차세대, 이 모든 하드웨어들을 활용하고 돌려나갈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그저 한순간에 풀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에는 '선지자'가 있었을 뿐 아니라 '나실인'도 같이 있었습니까?

아직은 경향의 후손들이 '경건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신실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 꼳 우리 경향교회가 누릴 더 큰 복과 영광스러운 미래와 직결되어 있음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청년들을 꼭 '성별된 나실인'으로 키우고 더 많은 우리의 아들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도록 마음을 다해 격려하며 힘을 다해 후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곧 '가문을 일으킬 글방 도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경향의 1세대에는 실로 훌륭한 '선지자'가 세워졌고 정말 신실한 '나실인'들이 나왔습니다.

원로목사님께서 당신의 목회사역의 최전성을 운통 바쳐셨고, 초대 장로님들 역시 겨우 30세 전후의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생애 최고와 전부를 다 바쳐 다 충성스럽게 섬겨 왔습니다.

이 경향교회가 남달리 큰 복이 넘치는 영적 초장이 되고, '세계를 받은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는 산성이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향의 2세대 역시 이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향의 아들'들이 더 많이 '별남'으로 서원을 하고 '제네바신학대학원'을 거쳐서 목사와 선교사와 신학교수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경향의 청년'들이 '경향교회 3대 후원회'의 회원과 임원이 되어야 하며 경향학원과 우성학원과 종회유지재단의 이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향의 후손들이 '경건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신실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 꼳 우리 경향교회가 누릴 더 큰 복과 영광스러운 미래와 직결되어 있음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청년들을 꼭 '성별된 나실인'으로 키우고 더 많은 우리의 아들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도록 마음을 다해 격려하며 힘을 다해 후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겨울을 지내자(행 27:9-32)



푸른교회 조성노 목사

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 하더니 [14]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5]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나다가 [16]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17] 끌어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릉스레 걸립니다.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나다가 [18]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19]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 [20]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니 [21]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며 좋을

뻔하였느니라 [22]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섭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25]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27] 열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 저리 쫓겨나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28] 물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29]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30]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

여 이들에서 뒷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31]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32]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예루살렘에서 전격 체포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아시는 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황제에게 직접 재판 받을 항소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지만 그곳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호송 당하던 중입니다. 바울이 왜 굳이 황제가 주재하는 로마대법정에 항소했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로마 심장까지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가 주후 59년 겨울입니다. 당시 바울이 탄 배는 예루살렘 국적의 알렉산드리아호였습니다. 그 배는 유럽선이 아니라

겠습니까? 그들은 바울의 비참한 최후를 예상하며 측은하게 봤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가 지금의 크레타 섬의 미항(칼루스 리메나스)에 정박했을 때, 바울이 호송관인 백부장과 선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판국장 장세규 교계판국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미주 기독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